

['고난의 역사현장' 일제전적지를 가다](104)

제3부 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42 (4)108여단 주둔지-(3)체오름 산중에 위치한 게릴라전 요새

입력 : 2008. 05.29. 00:00:00



지하 갱도진지 10여곳 집중 분포 확인
日 108여단 주저항진지의 하나로 구축

제주 동부지역은 태평양전쟁 당시 유격전의 중심무대로 상정됐던 곳이다. 말 그대로 게릴라전을 위해 일본군 108여단 6천여 병력이 구좌읍 조천읍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 진을 쳤다. 해안과 10km 이상 떨어진 중산간지대는 산중 요새가 만들어졌다.

취재팀이 지난 3월 집중 탐사한 체오름의 경우도 대표적이다. 취재팀은 이 일대에서 일본군이 유격전에 대비해서 구축한 많은 군사시설을 찾아냈다.

체오름(표고 3백82.2m)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덕천리 경계에 위치해 있다. 이 오름은 분화구가 북동쪽으로 깊고 길게 터진 전형적인 말굽형 화구(U형)를 가졌다. 입구에서 분화구 안쪽까지의 길이는 5백m 이상이다.

▲체오름 갱도진지 내부에 빠져 죽은 소의 뼈 만이 앙상하게 남아있다. /사진=이승철기자

일본군이 남긴 군사시설인 갱도진지는 체오름의 동사면 하단부 일대에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수는 모두 10곳에 이른다. 입구는 약 20곳이나 된다.

갱도진지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오름 동사면 3부 능선 지점에 위치해 있다. 스코리아(scoria)층을 뚫은 이 갱도는 전체적으로는 디귤(ㄷ)자형 구조이지만 내부에는 직선형 공간이 3개 만들어져 있다. 전체 길이가 60여m로 비교적 작지만 아주 짜임새 있는 구조를 보여준다. 특이한 것은 남쪽 출입구가 관측구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내부에서 밖을 관측할 수 있도록 입구 부분에 조그만 공간(높이 40, 폭 40cm)을 냈다. 또한 천장부에는 구멍이 나 있다. 내부에는 등잔흙과 갱목흙을 볼 수 있다.

전체적인 양상을 보면 체오름 일대에 구축된 갱도진지 가운데 중심을 이루는 곳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 일대에는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갱도가 위치해 있다. 이 갱도는 전체가 디귤(ㄷ)자형 구조다. 내부 통로는 외부로부터 토사가 유입되면서 낮아져 있는 상태다. 가운데 연결부분에는 또다른 공간이 보이지만 통로가 너무 낮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취재팀은 잠시 주춤했다. 갱도 바닥에는 소뻐가 앙상하게 남아있다. 유난히도 크게 보이는 소머리 부분이 어둠속에서 죽어가던 끔찍한 광경을 떠올리게 한다. 갱도진지는 오름 하단부에서도 확인된다. 입구가 3곳인 갱도진지를 비롯 10여 곳의 입구가 확인된다.



그렇다면 당시 일본군 군사지도에는 체오름 일대가 어떻게 그려져 있을까. 체오름은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 '주저항진지'의 하나로 표기돼 있다. 이 곳에서 확인된 갱도진지들은 일본군 주둔 실상을 보여주는 흔적들이었다.

▲체오름 하단부에서 확인된 갱도진지 내부(사진 위)와 체오름 동사면에 구축된 일본군 갱도진지 내부 동진흙이 백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있다.

갱도진지가 분포하고 있는 동사면 정면으로는 안돌오름과 밧돌오름이 나란히 버티고 섰다. 그 사이는 소나무 삼나무 등이 자라고 있지만 너른 개활지다. 60여 년 전에는 오름으로 둘러싸인 평탄대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체오름의 갱도진지는 외부로부터 쉽게 노출되지 않는 산중에 공공 숨겨놓은 요새인 것이다. 게다가 '물죽은못' 등 물을 얻기에도 좋은 입지조건을 지녔다.

이렇듯 제주 동부지역이라고 예외는 없다. 일본군에 있어서 오름은 그 자체가 하나의 요새로 인식됐고, 지하에 많은 군사시설이 만들어졌다. 그 현장은 제주도민 뿐 아니라 다른 지방 민간인들까지 맹목적으로 동원시켜 만든 고통과 고난의 역사현장이다. 일본이 제주도를 무대로 저지른 전쟁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다. 그 실상 역시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일제 군사시설 조사·보존방안 관심

함덕 북촌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날 설명회는 영상 상영과 황석규 박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는 서우봉 동굴진지 등 일제 동굴진지 등록문화재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일본군이 구축한 동굴진지 등 군사시설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향후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성추 함덕연합노인회장은 "당시 실제 노역하는 것을 보았다"며 "그동안 행정에서 문화재와 관련 모순된 일을 하기도 했지만 일제가 저지른 뼈아픈 현장은 그 자체가 소중한 역사현장인 만큼 잘 보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정 함덕리 연합부녀회장은 "60여년 지나서 이제라도 일제 군사시설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지는 것이 감사하다"며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현장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서 제대로된 보존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촌리 이춘두 이장은 "서우봉 동굴진지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실을 지역민들은 모르고 있다"며 "문화재가 되면 사유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받는다고 인식되는 만큼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에 의견수렴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우봉(犀牛峰) 일본군 동굴진지는 태평양전쟁 시기에 해안으로 상륙하는 연합군 함정을 공격하기 위해 일본군이 제주도민을 동원해서 구축한 자살특공정기지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